

제218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 How to capture the Rising Middle Class in Japan: Based on the Synodos Survey

강사 : 하시모토 쓰토무(橋本努), 홋카이도대학 교수

시간 : 2017. 12. 12. 화. 12:00 - 14:00

장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102호

2017년 12월 12일(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102호에서 제218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약 20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소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How to capture the Rising Middle Class in Japan: Based on the Synodos Survey'라는 주제로 하시모토 쓰토무 홋카이도대학 교수가 강연을 진행하였다. 하시모토 쓰토무 교수는 요코하마국립대학 경제학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 경제학부에서 석사학위와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홋카이도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하시모토 쓰토무 교수는 본 세미나에서 2017년 9월에 실시한 사회 조사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자에 대한 새로운 인적 자원을 소개하였다. 일본에서는 우세한 보수주의자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하시모토 쓰토무 교수는 중도 좌파(center forming left)가 지지하는 대안 정치의 이미지를 어떻게 포착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유주의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는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현대 자유주의자의 6가지 특징을 확인하고, 이러한 특징과 우리 생활 방식의 20가지 특징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2016년 6월 영국은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으며(51.9% 탈퇴, 48.1% 잔류), 그 해 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자유당이 대중의 지지를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압승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도 '불안정한 진보적 중산층' 또는 '중산층의 자유주의 정치 소외'라는 사태로 보았다. 진보적 중산층이 어떠한 정치적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졌다.

하시모토 쓰토무 교수는 이것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전에 '자유주의자'가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부르주아지, 노동자, IT 업계 사업가, 여성 운동, 복지 서비스 노동자 등 각 시대의 새롭게 부상하는 계급과 함께 해왔다. 즉, 각 시대의 요구에 따라 여러 번 변화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의 보수적인 개혁'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사회는 새로운 정체기를 경험했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 의식을 가진 중산층은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이 필요했다. 하시모토 쓰토무 교수는 사고, 이론, 사회 조사, 통계 분석, 정치 추세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자유주의자’의 정치적 입장은 서구 사상의 맥락에서 ‘계몽’과 ‘관용’이라는 두 가지 기본 개념으로 특징 지어졌다. ‘계몽’은 권위를 비판하고, 합리적인 행위를 확인하면서 비판하지 않고 전통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부인한다. 반면에, ‘관용’은 통일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비판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다양성을 수용한다. ‘권위에 대한 비판’, ‘전통에 대한 비판’, 그리고 ‘통일성에 대한 비판(다양성에 대한 찬사)’은 ‘자유주의자’의 기본 특징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특징은 또한 ‘급진 좌파’의 생각과 공통적이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자’와 ‘급진 좌파’는 같은 정치 범주에 속한다. 급진 좌파는 권위, 전통, 그리고 통일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 결정에서 민주적 과정을 소홀히 한다. 급진 좌파는 자유주의적이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와 급진 좌파는 그다지 구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주의자’와 ‘급진 좌파’는 정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 정치 목표는 권위주의와 연결된 ‘보수주의’, 전통주의 및 ‘포퓰리즘’과 관련된 ‘애국심’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자’의 입장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권위, 모든 전통, 모든 통일성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 자유주의적인 개념과 독재적이고 전통적이며 획일적인 개념 사이에 상호 침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역의 상호 침투를 통해 자유 시민 활동은 권위, 전통 및 통일성과 같은 특징을 가진 다양한 영역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문제는 그러한 상호 침투의 전제에 기초하여 ‘현대 자유주의자’를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는가이다. 중산층을 ‘새로운 자유주의자’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세워야 한다.

하시모토 쯔토무 교수는 우선 ‘신흥 중산층’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신흥 중산층’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특성화하였다. 첫째, 1990년대 중반 이후 IT 산업의 부상으로 부상한 ‘창조 계급’이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IT산업에 속한 것은 아니다. 둘째, 최근 북유럽 복지 국가들의 “신복지주의”의 특징을 가진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신흥 중산층을 나타낸다. 그는 ‘창조 계급’과 ‘신복지주의’에서 (1) 투자 성향, (2) 보편주의, (3) 편견 반대(anti-prejudice), (4) 균등화, (5) 탈 맥락주의, (6) 비판적 태도라는 공통 특성을 추출하였다.

이 여섯 가지 특성은 가설에 불과하다. 이 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흥 중산층의 특성을 언급하고 여섯 가지 특성과 그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신흥 중산층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니멀리스트’, ‘일본의 전형적인 샐러리맨’과 같은 20가지 특성(사회적 계층)을 추출했다. 이러한 특성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자 또는 ‘신흥 중산층’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 집단이다. 그리고 이것을 ‘클러스터(cluster)’라고 부른다. 신흥 중산층을 파악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소득, 직업 등에 의해 파악되는 사회적 계층보다는 생활 방식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시모토 쯔토무 교수는 신흥 중산층을 ‘일반 시민’으로 불렀다. 이 ‘일반 시민’은 ‘투자 지향’, ‘보편주의’, ‘조용한(침묵)’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이중에서 ‘조용한(침묵)’이라는 특징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고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특징에서 파생되는 것은 ‘일반 시민’의 특성을 자기 정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기본 특성은 ‘투자 지향’과 ‘보편주의’로 축소될 것이다.

또한 하시모토 쓰토무 교수는 신홍 중산층의 네 가지 기본 특징을 파악하였다. 첫째, 평등화로 건전한 권위에 대한 보편주의자의 인정이다(권위와 전통에 대한 비판). 둘째, 비판적 태도 및 탈맥락주의로 복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다(권위, 전통, 통일성에 대한 비판). 셋째, 편견 반대로 약자의 인격에 대한 보편적 인정이다(권위, 전통 및 통일성에 대한 비판). 넷째, 보살핌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개인적인 배려 실천이다(권위와 통일성에 대한 비판).

이와 같이 '신홍 중산층'의 두 가지 기본 특징과 네 가지 추가 특징을 밝혔다. 이 여섯 가지 특징 중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신홍 중산층'으로 파악 될 수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중도 좌파'는 '자유주의자'로 불렸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신홍 중산층'이 어떻게 다르고 겹치는가이다. 설문 조사 결과, 자유주의자들은 자기 인식에서 '투자 지향'보다 나머지 다섯 가지 특성에 중요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핵심 자유주의자들(Core-liberal)은 여섯 가지 특징 중 '편견 반대'와 '비판적 태도'와 같은 두 가지 특징에만 상관 관계가 있었다. 비록 신홍 중산층의 기본 특징인 '투자 지향'이 전통적인 자유주의자의 철학에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이 '투자 지향'은 현재 보수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정치의 핵심 특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한 것은 신홍 중산층의 관점에서 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범주이다. 여기에는 보수주의와 가까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와 멀리 떨어진 자유주의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 보수주의에 가까운 자유주의자들을 포함시키기에 대한 일종의 헤게모니 투쟁(A. Gramsci에 따르면)이다. 하시모토 쓰토무 교수는 이 점을 시각화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에 관심을 끌었던 Daniel Kahan의 이론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의 기본 특징은 '권위주의'에 대비되는 '평등주의'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건전한 권위를 인정하는 '신홍 중산층'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치단체가 건전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한다. 물론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사조에서 예를 들어 노동 조합과 소비자 운동에서 '자치 연대'라는 개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신홍 중산층은 '자치 연대'라는 철학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신홍 중산층은 '자율적인 개인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연대'라는 두 가지 특징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자치 연대'의 입장이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로 변형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신홍 중산층은 '인본주의적인 개인주의'와 상관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사조에서 평등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유형이 '인본주의적인 개인주의'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은 신홍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와 상관관계가 없다. 보수적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구호의 관점에서 이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신홍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은 '자율적인 개인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연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의 결합이다. 이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자치 연대'와 '인본주의적 개인주의'의 결합이다.

<토론>

질문 : 소비세 인상에 관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자민당과 공산당은 매우 유사한 입장입니다. 다른 소수 그룹은 이것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저는 미래의 자민당의 정치적 동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답 : 소비세 인상은 굉장히 현재적 이슈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기를 얻고 싶다면, 이것에 대해 반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이슈에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 저는 '신흥 중산층(rising middle class)'의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계층으로서 일본에서 어떻게 정치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나요?

답 :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단체는 일본 사회에서 정치적 영향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민당을 지지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자민당이 매우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도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자민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질문 : 일본에서 '신흥 중산층(rising middle class)'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 저는 '신흥 중산층'과 자민당을 구별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민당을 지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일본 상황에 대해 굉장히 좌절할 겁니다. "나는 자민당을 지지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민당과 구별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 선생님의 결론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한편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일본은 젊은이들도 포함해서 내셔널리즘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정치적 리더십이 그것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유주의라는 사고방식이 학생들에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민당이 자유주의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의 선거권도 아마 자민당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자유주의자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자민당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미지는 내셔널리즘은 영국도, 미국도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유주의 세력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리더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서 시민의 새로운 사상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자유주의가 중요합니다.